

핵심 정리

1. 인물

인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또는 의인화된 대상으로, 사건과 행동의 주체를 말한다.

중심인물

요사 개념어 → 주요 인물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게 비중이 큰 인물을 말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두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그때에 **어머니**가 내가 팔 흔드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두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 잡아다가 옆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 보니까 어머니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군요.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어머니’와 ‘아저씨’로, 어린아이인 ‘나’의 눈을 통해 ‘어머니’와 ‘아저씨’의 미묘한 사랑과 심리적 갈등이 묘사되고 있다.

주변 인물

요사 개념어 → 부차적 인물

중심인물 이외의 부수적인 인물로, 중심인물의 주변에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인물을 말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넉넉하게 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안 그래도 찬바람 불어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났는데.”

똥주는 정말 보기 드문 철면피다. 나는 나무젓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젓가락이 모자랐다.

“완득아, 앞집 양반 좀 오라고 해라. 괜찮죠?”

똥주는 **아저씨**를 보며 말했다. 남의 음식으로 자기가 생색낼 모양이다. 아버지도 좋다는 표정이다. 나는 **앞집 아저씨**를 불러와야 했다.

안 올 거라는 예상을 깨고 앞집 아저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다.

“어서 앉아요. 저녁 먹읍시다.”

- 김려령, 「완득이」

→ ‘그분, 똥주, 아버지, 앞집 아저씨’는 모두 주변 인물로 주인공 ‘나(완득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주동 인물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실현하는 인물을 말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3“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기억할까?” /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으시오. 증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
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체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 “얼굴 들어 나를 보라.” /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걸인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 작자 미상, 「춘향전」

→ ‘춘향’은 시련 속에서도 정절을 잃지 않은 인물로, 열녀이자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들의 항거 의식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인물이다.

반동 인물

주동 인물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을 말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아이!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다. 따라서 사 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길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씨는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아울러 교씨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
로 참소해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사 부인(사씨)’과 ‘교씨’는 처첩 간으로, 선하고 덕성이 있는 ‘사 부인(사씨)’은 간교한 여인인 ‘교씨’의 모략으로 시련에 처하게 된다.

직접 제시

요사 개념어

설명적·분석적·해설적 제시, 말하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로 요약, 설명, 논평 등으로 표현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일터에서의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뻗뻗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다. 잘 웃지도 않는다.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타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가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
는 그이를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고 부른다. <중략>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 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없이 별명이 통하는 것만 보아도 김대호 씨의 대인 관계가 아
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그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 양귀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 ‘무뚝뚝하고 뻗뻗한’ ‘김밥 아줌마’와 ‘낙천적이고 이해심 많은’ ‘김대호 씨’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간접 제시

요사 개념어

극적·장면적 제시, 보여 주기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주로 외양 묘사, 말투와 대화 등으로 표현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 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
수남이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열여섯 살이라지만 불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 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
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잠잠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번두리 전기 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가 잦다. 수남이가 받으면,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 하고 깎듯이 존대를 해 온다. / ‘아,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 수남이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짜아식, 새벽부터 재수 없게 누굴 놀려. 너 이따 두고 보자.”
이런 호령이라도 들려오면 수남이는 우선 고개를 움츠려 알밤을 피하는 시늉부터 한다. 설마 전화통에서 알밤이 튀어나올 리는 없는데 말이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수남’의 외양이나 행동 묘사를 통해 순진하고 순박한 ‘수남’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우호적 태도

양사 개념어 호의적 태도

‘우호적’은 ‘사이 좋은 것’을 말하는데 같은 대상이라도 좋은 사이일 경우에는 더 좋게 평가하고 같은 상황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를 우호적 태도라고 한다.

2 적극적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소극적 태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인 태도를 말한다. 부당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비관적 태도

‘비관적’은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하며 비관적 태도는 앞으로의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5 비판적 태도

‘비판적’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비판적 태도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들추어내는 것을 말한다.

6 자조적 태도

자기 자신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비웃을 때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다.

7 회의적 태도

인물이 대상이나 자신의 처지, 가치, 미래 등에 의심을 품으며 믿지 않는 태도를 회의적 태도라고 한다.

8 이중적 태도

같은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듯이 이중으로 대하게 될 때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다.

9 풍자적 태도

‘풍자’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는 것을 말하며, 문제 상황이나 부정적인 대상을 우습게 만들고 비판하는 태도를 풍자적 태도라고 한다.

10 해학적 태도

‘해학’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웃음으로 넘기는 태도가 해학적 태도이다.

2. 사건

사건

‘사건’은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이다.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며 주제를 형성한다.

1 개연성

‘개연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이다. 소설, 극과 같은 문학 작품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루고 성격, 행위, 구성 등 모든 측면에서 그럴 듯하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지닌다.

2 우연성

‘우연성’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발생한 일이지만, 그 자체는 뒤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전기성

‘전기성(傳奇性)’은 비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일과 같이 ●기이한 성질이 있는 것이다. 도술을 부리거나,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 보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일과 관련이 있다.

4 암시

‘암시’는 어떤 내용을 넌지시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5 복선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장치이다. 복선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독자들에게 미리 심리적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6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은 작가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고 독자들이 작품의 결말을 상상하도록 하는 마무리 형식이다.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7 닫힌 결말

‘닫힌 결말’은 결말을 특정한 한 가지로 정하여 선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독자의 상상을 배제하고 작가가 의도한 주제를 그대로 전달한다.

갈등

‘갈등’은 인물의 심리, 인물 간의 의견이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갈등은 사건의 전개에 긴장감을 더해 주고 인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갈등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인물과 다른 외부 요소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심리가 대립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제 되지를 앓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것이었을까?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쁜 짓은 또 뭐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풀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풀이 꼭 도둑놈 풀이다.”라고 하였을까. /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다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던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침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힐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못하고 좁은 방안을 해맸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여기에서의 ‘나’는 ‘수남’이다. 낮에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신사’는 ‘수남’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우고, 수리비 오천 원을 가져와야 자물쇠를 풀어 주겠다고 하였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수남’은, 사람들이 부추기자 ‘신사’가 자리를 뜬 사이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다. 저녁이 되자, ‘수남’은 낮에 자신이 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간악한 ‘신사’를 골려 준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



자신이 한 행동은 도둑질이므로 옳지 않다는 생각

외적 갈등

‘외적 갈등’은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둘 사이의 상반된 입장과 태도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 있다.

외적 갈등의 유형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 간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하여 생기는 갈등 예 「임경업전(林慶業傳)」: 행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호왕’과 죽는 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경업’ 간의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대립·대결함으로써 생기는 갈등 예 김동리의 「역마(驛馬)」: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려는 인물들과 역마살이라는 운명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제도 등과 입장이 달라 생기는 갈등 예 허균의 「홍길동전(洪吉童傳)」: 벼슬을 얻고 싶어 하는 ‘홍길동’과 그가 서열이라는 이유로 그를 차별하는 사회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	인물이 자연재해를 겪거나 거대한 자연에 도전하면서 생기는 갈등 예 김정한의 「사하촌(寺下村)」: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려 애쓰는 농민들과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간의 갈등

작품으로 알아보기

‘호왕’
행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임경업’을 협박함.



‘임경업’
죽는 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며 ‘호왕’의 제안을 거절함.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중시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행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宗社)를 위하여 네게 행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네게 행복하리오.”

하니 호왕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 “내어 베어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林慶業傳)」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군담 소설이다. 이 장면에서 ‘호왕’은 행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임경업’을 협박하고 있고, ‘임경업’은 죽는 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며 ‘호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즉, ‘호왕’과 ‘임경업’은 외적 갈등(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3. 배경

배경의 기능

-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예

그의 발 앞에는, 물도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후략> - 김동리, 「역마」

→

실제 지명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함.

- 주제를 암시한다.

예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까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만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조마이섬’은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소유권 문제에서 소외된 섬사람들의 비극적 삶을 드러냄.

-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맞은 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종락>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 황순원, 「소나기」

→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함.

- 인물의 심리 상태나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

예

비 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때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종락> 한편 천장에서는 쉼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 손창섭, 「비 오는 날」

→

계속 비가 내리는 어둡고 음침한 배경을 통해 6·25 전쟁 직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 심리를 드러냄.

4.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이를 말한다.

시점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말한다.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있느냐,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주인공인 '나'가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2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자가 관찰한 것만 전달하므로 독자는 '나'가 전해 주는 내용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나 심리 등을 추측하게 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안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옥희, 이것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랴구,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 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어린아이인 '나(옥희)'가 '어머니'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인물의 내면 심리가 직접 드러나지 않으므로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하므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두 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열여덟 개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핸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한 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얇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 든 채 멍청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흘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잔기침을 몇 번 콧콧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한 개씩 피우라구요? 꼭, 한 개씩, 피, 우, 라, 구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 ㅎㅎ ㅎㅎ ㅎㅎ...

눈 덮인 산속, 아직 눈 조용히 비껴 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 전상국, 「동행」

→ 작품 밖의 서술자는 ‘키 큰 사내’와 ‘억구’가 하는 행동과 돌이켜 주고받는 말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심리 및 사건의 양상을 독자가 적극적으로 추측하게 하고 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자가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의 정황과 인물의 심리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요즘에는 아버님 병환에 차도가 있으신지 문안드립니다.”

봉순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목청을 가다듬고 외는 투의 억양 없는 소리를 질렀다. / “괜찮다. 서희도 밥 잘 먹고 감기는 안 들었느냐?”

갈기갈기 갈라진 여러 개의 쇠가 서로 부딪칠 때 나는 것 같은 목소리는 여전히 ●음산했다. 그는 서희의 공포심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풀어 주려는 노력이 없는 싸늘하고 비정한 눈이 서희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희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당장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애처롭게 그를 마주 본 채 고개를 저었다. <중략>

일단 방에 들어온 뒤에는, 나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희는 일어설 수 없다. 숨소리를 죽이며, 그래서 가냘픈 가슴이 더 뛰고 양어깨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것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 박경리, 「토지」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 ‘서희’가 아버지 ‘치수’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상황을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서희’가 느끼는 긴장과 두려움의 감정, 아버지 ‘치수’의 차가운 성격을 상세히 드러냄으로써 독자가 사건의 정황과 인물의 심리를 자세하게 알도록 하고 있다.

‘거리’는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먼지를 가리키는 정도를 말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작가 관찰자 시점
서술자-인물	가까움	없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알고 있는 경우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표면적인 관찰만 하는 경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서술자-독자	가까움	없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의 내면 등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경우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표면적인 관찰 내용만 전달하는 경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독자-인물	가까움 / 없	가까움
	서술자가 인물을 표면적으로만 관찰해서 독자가 직접 인물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알고 서술하여 독자의 상상과 분석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단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므로 독자는 인물을 가깝게 느낀다.	

하나의 작품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시점을 섞어 쓰는 것을 말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서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꼭 움켜 잡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 전지적 작가 시점

- 오상원, 「유예」

→ 시점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인물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한 부분에서는 ‘나’의 의식 세계를 독백하듯이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에 주목하게 하며,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한 부분에서는 ‘나’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객관화하여 보여 주고 인물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에 끼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을 포함한다.

작품으로 알아보기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는 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주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주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 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長子) 쥐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융통성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 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잔의 술에 팔려 형장(刑杖)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

→ 서술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앞선 상황에 대한 판단,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 등을 통해 작품에 폭넓게 개입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 유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에 대한 평가 예) 어사도 남원읍의 공사를 모두 처리하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길을 떠나는데, 위의를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으랴. - 「춘향전」 ·사건에 대한 평가 예) 뒷간이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 오영수, 「화산택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감정의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에 대한 정서 표출 예) 길동이 재배 하직하고 문을 나서니, 첩첩 산중에 지향 없이 행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 작자 미상, 「홍길동전」 ·사건에 대한 정서 표출 예)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 김만중, 「사씨남정기」
독자에게 말 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하직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흥보 아내 거동 보소. - 작자 미상, 「흥보전」
서사 흐름 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그러고는 다시 강남흥에게 달려들더니 흘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이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 작자 미상, 「옥루몽」